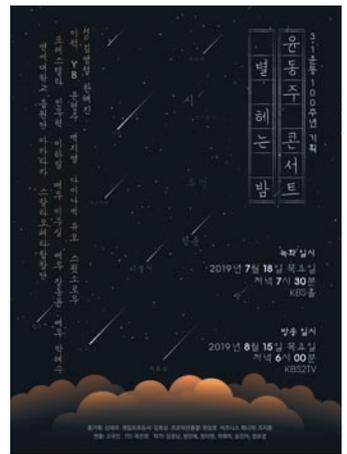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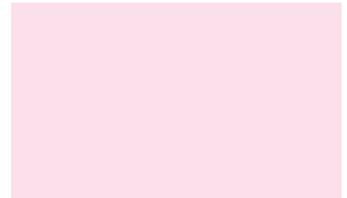




특집 _ “윤동주 시인은 내국인과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 존재”
화제 _ 문 대통령 “서명 없지만, 행동으로 적대종식·평화시대 시작 선언”





“대한민국의 역사, 해외동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어”



양승동
KBS 사장

1919년 1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프랑스 동부 쉬프의 황량한 벌판에서 저고리를 입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 현지 향토 사학자는 이 사진에 '전투지역을 청소하는 한인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힘겨운 타국 생활, 독일과의 격전지였던 이곳에서 시신을 수습해 번 돈으로 임정을 후원한 37명의 '꼬레앙' 들. 지난 4월, KBS 파리 특파원이 취재해 보도한 숨겨진 일화입니다.

나라는 빼앗겼어도 국적을 '꼬레앙' 이라 당당히 밝힌 민초들의 삶. 이렇듯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외동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740만 해외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 180여 국에 뿌리내린 사연은, 망국과 독립,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서 있는 격변의 대한민국 역사와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공존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한 100년이 넘는 시간. 대한민국과 해외동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KBS도 독립운동가의 후손 중 자랑스러운 해외동포를 발굴해 제20회 KBS해외동포상을 수여했으며,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한 감동적 공연과 다큐들로 민족적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전 세계 120개국에서 방송되며 5월 22일 자로 유튜브 구독자 1천만 명을 돌파한 KBS WORLD TV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방송되는 KBS WORLD 24 채널은 한류 확산의 기폭제이자 대한민국과 동포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돌이 아니라 더 큰 하나입니다. '고려인', '애니깽', '꼬레앙' 등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팍팍한 삶 속에서 각기 불리는 이름은 달랐지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2019년 한 해가 남과 북 그리고 전 세계 740만 해외동포가 함께하는 '민족적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 커진 하나가 되어 더 큰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



정부의 공식 명칭은 "재외동포(Overseas Koreans)"입니다.



- 02 권두언 "대한민국의 역사, 해외동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어"
양승동 KBS 사장
- 04 특집 "윤동주 시인은 내국인과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 존재"
- 06 화제 문 대통령 "서명 없지만, 행동으로 적대종식·평화시대 시작 선언"
- 08 기획 3·1운동 1주년 기념식, 당시 중국 상하이 중심가에서 성대하게 열려
- 10 글로벌 코리아 '국악과 재즈의 만남' 공연 펼친 재외동포 국악인 민영치 씨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탈북자 출신 사업가 전철우 대표
피사·피렌체 국제공항서 작품 전시회 열고 있는 동포 조각가 박은선 씨
- 12 한민족 공감 1 문 대통령, 6·25 전쟁 참전유공자 청와대 초청 위로연
- 14 한민족 공감 2 이 총리, 애국지사 허위 선생 후손 만나 '하나 된 조국' 다짐
- 15 주목! 차세대 헝가리 사고 현장서 자원봉사자로 통역 역할 한 동포 1.5세 이주안 씨
- 16 동포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 재외선거 투표 실시 외
- 19 동포 캘린더 캐나다한인회총연, 오타와서 정치력 신장 콘퍼런스 열어 외
- 20 유공동포 독립운동가로, 초기 재외동포사회 지도자로 활약한 도산 안창호 선생
- 21 지구촌 통신문 한반도 화합 기원 '고려인 자동차 랠리팀' 2만5천km 대장정 돌입
- 22 OKF 뉴스 9개국 재외동포 대학생 286명 모국 연수... 역사 체험 프로그램 시행 외
- 24 문학의 창 재미동포 문학의 아버지 강용홀... "큰 문학자가 있어야 큰 나라이다"
- 25 기고문 정체성 교육
백봉자 전 연세대학교 교수
- 26 재단공지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주 시인은 내국인과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 존재”

재외동포재단, KBS 주최 ‘운동주 콘서트-별 헤는 밤’ 공연 성황



3·1운동 100주년 기획 ‘운동주 콘서트-별 헤는 밤’ 공연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과 KBS(사장 양승동) 주최로 7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펼쳐졌다. 이날 무대에는 배우 김영철과 한해진이 MC를 맡았고 운동주의 6촌 동생인 가수 윤희주를 비롯해 이적, YB(윤도현밴드), 백지영, 다이나믹듀오, 포레스텔라, 스위트소로우, 뮤지컬배우 민우혁, 배우 박혜수·장동윤,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이하림, 연세대음원단 등이 올랐다. 운동주의 생애를 노래로 들려주고, 그가 남긴 시를 낭독하고, 국내외에 남아 있는 발자취를 영상으로

소개하자 1천500여 객석을 메운 관객들은 운동주의 삶과 작품세계에 흠뻑 빠져들었다.

공연은 광복절 특집으로 8월 15일 오후 6시 KBS 2TV로 녹화방송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강인희, 박원우 2019 세계한인회장 대회 공동대회장, 여건이 재일민단 단장, 임도재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 하운수 한국교총회장, 김성곤 (사)평화 이사장, 이구홍, 김경근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관람했고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우성 이사장, 오영훈 기획이사, 기춘 사업이사 외에 주무부서인 연구소통부를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밖에 지역별 한인회장 및 동포사회 지도자 16명,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참가자 40명, 조선족학교 교원 초청연수 참가자 63명, 러시아 CIS지역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 참가자 45명,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초청연수 참가자 37명도 함께 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적 피아니스트 쇼팽이 폴란드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나 프랑스에서 주 무대로 활동했고 프랑스에서 사망했지만, 폴란드의 자부심이자 상징이 됐다. 쇼팽은 요즘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폴란드의 재외동포인 셈이다.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 이름이 쇼팽공항이다. 쇼팽은 폴란드의 국격을 높이고, 폴란드의 내국인과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물이 있다.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고, 재외동포 시인인 운동주이다”라고 말했다.

“운동주는 생애 3분의 2 기간 북간도에서 보낸 재외동포 시인”

실제 운동주는 28년이란 짧은 생애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0년을 지금의 지린(吉林) 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인 중국 북간도 일대에서 보냈다. 조국 땅에 머문 기간은 평양 송실중 1년과 서울 연희전문 4년을 합쳐 5년 뿐이고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일본 도쿄의 릿교(立教)대와 교토(京都)의 도시샤(同志社)대를 다니다가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그는 처음부터 한반도 밖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조국의 가슴 아픈 현실에 괴로워하며 젊음을 바쳤고, 맑은 감성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풀어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비롯한 한인들이 비록 몸은 조국을 떠났어도 공동체를 이뤄 살며 항일독립투쟁을 벌이고 2세대의 민족교육에 힘을 쏟았다.

윤동주의 조부 윤하현은 김약연·김하규·문병규·남도전 등 4가문의 가족 142명이 1899년 중국 지린 성 허룡(和龍)현에 터전을 마련하자, 그 1년 뒤 합류했다. 이들은 '동쪽을 밝힌다'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 명동촌(明東村)이라고 짓고 1908년 명동서숙(이듬해 명동학교로 개칭)을 지어 인재를 길렀다. 중심인물은 '간도 대통령'이라고 불린 김약연이었다.

1925년 송몽규·문익환과 함께 명동소학교에 입학한 윤동주는 외삼촌인 김약연 교장의 훈육을 받으며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 1932년에는 캐나다장로회 선교회가 운영하는 룡징(龍井)의 은진중학교에 진학해 교내 잡지를 만들며 시적 재능을 익혔다. 1941년 12월 연희전문을 졸업하면서 재학 시절 쓴 시 19편을 묶어 필사본 시집 3부를 만든 뒤, 은사인 이양하 교수와 후배 정병욱에게 1부씩 건네고 자신도 1부를 보관했다. 연희전문 친구 강처중에게도 이듬해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 시 '참회록' 등을 맡기고, 일본에서도 편지에 시 5편을 담아 보냈다. 이 시들은 1948년 1월 간행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통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다.

윤동주는 1944년 3월 일제에 의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해방을 몇 달 앞둔 1945년 2월 16일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함께 수감된 송몽규도 3월 10일 옥사해 룡징에 나란히 묻혔다. 일부에서는 윤동주와 송몽규가 혈장 대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생체실험을 받다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도덕 교과서에는 윤동주를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동포 시인'이라고 설명해놓았다. 사회 교과서에는 안중근 의거를 도운 사람의 하나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을 거명하며 재외동포로 명시했다.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을 교과서에서 재외동포라고 소개한 것은 처음이다.

“해외에서 한인동포 위해 봉사 희생하는 분들은 독립운동가와 똑같은 모습”

이날 공연을 본 심재권 의원은 “윤동주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또 지순하

게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더욱이 최근의 한·일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정말 윤동주 선배님이 걸으셨던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봤다”라고 말했다. 부부동반으로 공연을 관람한 박종범 민주평통자문회의 유럽중동아프리카 부의장은 “일본이 경제제재를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윤동주 시인의 생전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대비되면서 생각이 난다. 일제하에 어두웠던 그 시절에 절망하면서도 곳곳하게 나라의 긍지를 지키며 독립운동했던 선조들의 뜻을 되새기면서, 윤동주 시인이 고민했던 그런 아픔을 후세들은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인동포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들은 옛날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 총연합회장은 “윤동주 시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는 얘기를 들으니 재외동포로서 더 큰 긍지를 갖게 됐고 조국에 대한 사랑도 커질 것 같다”고 했고 김경근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멋있는 공연이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재조명해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

1. 재외동포재단과 KBS가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윤동주 콘서트-별 헤는 밤' 공연이 7월 18일 오후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2. 현존하는 윤동주 시인 최후의 사진. 일본 교토(京都) 우지(宇治) 시의 우지천(川) 아마가세쓰리바시에서 촬영됐다. 윤동주는 1943년 자신의 송별회 자리에서 이 사진을 촬영한 다음 한 달 후 체포돼 감옥에서 숨졌다.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윤동주.
3.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명동촌에 위치한 윤동주 시인의 생가.

문 대통령 “서명 없지만, 행동으로 적대종식·평화시대 시작 선언”

‘6·30 판문점 남북미·북미 회동’ 평가… 정치적 의미 ‘종전선언’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지난 일요일(6월 30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의 출발점이자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청와대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의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했다”며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민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방탄복이 아닌 양복·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1

GP를 방문한 건 사상 최초”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전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된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운 상황을 비교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의 서울·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 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뵈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작업에서 발굴된 유품을 참관했고, 대한민국에서 안보·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은 정상들 간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돼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2

1.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오후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오울렛 초소'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2. 문 대통령이 7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3.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나오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3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에 감동을 준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을 줬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연’ 역할 자처한 문 대통령… ‘북미대화 재개 최우선’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 한반도의 피스메이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날 오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DMZ 방문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이 공식화되며 사상 초유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추켜세우며 ‘주인공’ 자리를 북미 정상에 기꺼이 넘기고 스스로는 ‘조연’을 자처했다.

이날 회동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월경’ 때에도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측 ‘자유집’에서 대기하며 두 정상 역사의 만남을 조용히 지켜봤다. 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 월북과 월남을 거쳐 자유집 앞으로 이동한 후야 문 대통령은 밝게 웃으며 밖으로 나와 사상 첫 남북미 정상 회동을 완성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짧은 3자 만남 뒤에 다시 북미 정상이 양자 회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조연을 자처한 배경에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주춤하는 것으로 보였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의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53분간의 판문점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언급했다.

‘북미 간 실무협상 돌입’이라는 이날 북미 회담의 결실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고 평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조연’을 자처했음에도, 전격적인 남북미 정상회담 및 사실상의 3차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트윗 제안’이 김 위원장을 판문점으로 불러내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징검다리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초 김 위원장이 DMZ 회동에 응한 것 자체가 문 대통령에 대한 정상 간 신뢰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

3·1운동 1주년 기념식, 당시 중국 상하이 중심가에서 성대하게 열려 대회장인 ‘올림픽 극장’ 자리, 지금은 고층 산업건물 들어서



중국 상하이 중심의 변화가 난징시루(南京西路)에는 축구장 절반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매장인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있다. 세계적인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이곳을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도 끊이지 않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해시태그를 단 방문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하이를 찾는 많은 한국인이 독립운동의 성지(聖地)와 같은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이나 루쉰공원(옛 흥커우공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찾아가곤 한다. 하지만 난징시루의 스타벅스 매장 바로 앞이 근 100년 전 한인들의 독립 만세 행진이 펼쳐진 역사적인 장소였다는 사실까지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지난 1920년 3월 1일. 이른 새벽부터 상하이의 명더리(明德里), 바오강리(寶康里), 샤페이루(霞飛路) 일대에 사는 한인들의 집에 태극기가 속속 내걸렸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상하이의 3·1절’이라는 당시 기사에서 “상하이 시내에 이렇게 대한의 국기가 날린 것은 금차(이번이)가 처음이다”며, “비로소 세계 각국인이 모여 사는 상하이 한복판에서 ‘우리

는 대한인이다’라고 하는 표(標)를 보인 것”이라고 기록했다. 임정 요인들과 상하이 한인들에게 첫 3·1운동 기념식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었다. 이들은 첫 3·1운동 첫돌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것이 일제의 폭력적인 3·1운동 진압에도 독립을 향한 민족의 의지가 결코 꺾이지 않고 더욱 강렬해질 것임을 만방에 알리는 항쟁이라고 인식했다. 이날 이동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오전 임시의정원에 모여 3·1절 기념식을 먼저 개최했다.

“3·1운동 1주년 기념식에 상하이 일대 거의 모든 한인들 모여”

또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오후 2시에 맞춰 상하이와 일대의 한인 700여 명은 대형 서양식 극장인 올림픽극장으로 모여들어 3·1절 축하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지금은 헐린 옛 올림픽극장이 있던 곳이 바로 지금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의 길 건너편이다. 올림픽극장이 있던 곳에는 현대식 고층 상업건물인 후이인(匯銀)빌딩이 들어섰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자인 쑤커즈(孫科志) 푸단(復旦)대 역사학과 교수에 따르면 당시 상하이의 한인은 7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일대의 거의 모든 한인이 3·1운



3

동 1주년을 기념하고자 모여든 셈이다.

쑨 교수는 “임정 요인들은 당시 3·1운동으로 세계에 한국의 독립을 이미 알렸다고 생각하고 일제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것만 남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그들에게는 첫 번째 3·1운동 기념행사는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독립신문 기사를 보면, 교민단이 주최한 축하회 무대 위에는 대형 태극기가 교차해 내걸린 가운데 ‘대한독립 선언기념’, ‘독립 만세’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행사는 이 국무총리와 임정 내각 총장들, 손정도 임시의정원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단장 여운형의 사회로 진행됐다. 축하식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돼 이 총리와 손 의장의 축사, 독립군가 합창 등 순으로 이어진 뒤 만세 삼창으로 끝을 맺었다. 주최 측이 극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에게 손에 드는 태극기를 나눠줘 장내가 태극기의 바다로 변했다고 독립신문은 당시 모습을 전하고 있다.

“한인들, 자동차 타고 태극기 흔들며 일본인 거주구역 흥커우까지 진출”

1920년 첫 3·1운동 축하식 사진은 찾을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한 규모로 치러진 1921년 축하식 사진이 남아 당시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기념식이 끝난 오후 4시경, 감격이 가시지 않은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극장 앞 거리(지금 스타벅스가 들어선 곳)로 쏟아져나왔다. 봄비가 내리는 속에서 한인들은 정안쓰루(靜安寺路·현 난징시루) 전차길을 걸으며 ‘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일부 한인들은 자동차 여러 대에 나눠타고 태극기를 달고 당시 일본인들의 거주지인 흥커우까지 진출해 ‘독립 만세’를 외쳐 일본 당국을 바짝 긴장시켰다.



4

독립신문은 ‘우중(雨中)의 행진’이란 기사에서 “독립 만세를 더욱 고창(高唱)하며 일인의 시가인 흥커우 방면으로 돌진하여 심야까지 시위를 계속 하였는데, 러시아인들은 ‘우라’ (만세)를 부르고, 중국인은 박수로 환영하는데, 일인은 비슬비슬 보기만 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후 상하이 한인들에게 3·1운동 기념식 후 자동차 등을 동원해 거리 만세 시위에 나서는 것은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런 적극적인 저항 움직임은 상하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지역 한인 사회에서도 나타났다.

중국의 유력지 신보(申報)는 1920년 3월 4일 자에서 3월 2일 텐진(天津)의 한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영국 조계지에 들어가 전단을 뿌리고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논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삼일절 기념과 3·1운동 인식’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삼일절 기념식은 한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한 3·1운동의 기억을 되살리고 최후의 일인까지 싸워 해방을 맞이하겠다는 독립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이었다”고 평가했다. [\[참\]](#)

1. 3·1운동 축하식 이후 한인들이 벌인 거리 만세 행진 보도한 1920년 3월 4일 자 독립신문. (독립기념관 제공)
2. 1920년 3월 1일 한인들이 첫 3·1운동 축하식을 열고 만세 행진을 벌였던 난징시루 거리.
3.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 상하이에서 첫 3·1운동 축하식을 개최했던 옛 올림픽극장 터.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매장인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의 길 건너편에 있는 후이인(匯銀)빌딩이 올림픽극장이 있던 자리다.
4. 1921년 상하이 올림픽극장에서 열린 3·1운동 2주년 축하식. (독립기념관 제공)



‘국악과 재즈의 만남’
공연 펼친 재일동포 국악인
민영치 씨

“한·일 양국 관계 어려울수록 문화교류 늘려 공감대 넓혀가야”

“그늘진 한·일 관계에 빛이 되고자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어려울수록 문화교류를 늘려서 공감대를 넓혀가야 합니다.” 7월 13일 경기도 일산에 있는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국악과 재즈의 만남-달무지개(MoonRainbow)’ 공연을 한 재일동포 3세 국악인 민영치(49) 씨는 “한일 관계에 가고 역할을 하는 건 재일동포의 숙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구·대금 연주자이자 공연 디렉터로 한일 양국을 오가며 공연을 펼쳐온 민 씨가 꾸민 이번 무대는 ‘고양예술인페스티벌’의 하나로 마련됐다.

그는 “폭포에서 달빛에 피어나는 무지개를 가리키는 ‘달무지개’ 처럼 한·일 양국 관계가 희미한 가운데서도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민 무대”라고 소개했다. 재일동포 3세로 오사카에서 출생한 그는 초등학교 시절 장구를 배우기 시작해 고교 시절 유학으로 서울 국악고등학교를 나온 후 서울대에서 국악을 전공했다. 졸업 후 국악관련 악단 등에 입단하지 않고 양국을 오가며 자신만의 음악을 펼쳐왔다. 타 음악과의 접목을 통한 국악 발전에 힘을 쏟은 그는 국내 첫 퓨전 국악단인 ‘슬기둥’과 타악기 그룹 ‘푸리’의 창단멤버로 활동했고, 김덕수 사물놀이패, 정명훈, 강산에, 신해철, 싸이, 양방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과 협연을 펼쳐왔다. 민 씨는 “한국과 일본 양쪽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경계인으로 살아온 재일동포의 정체성 덕분에 타 음악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며 “스포츠 무대처럼 승패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게 협연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오사카에서 한식당을 운영했던 민 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못다 이룬 음악가에 대한 꿈이 있었기에 자녀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덕분에 큰형과 누나 역시 서울대에서 대금과 가야금을 전공했다. 특별히 국악을 전공한 이유를 묻자 “어린 시절 김덕수 씨의 음반을 듣고는 말할 수 없는 가슴 벅침을 느꼈고, 나도 그런 예술인이 되고 싶었다”며, “재일동포에게 국악은 뿌리에 대한 동경이면서 정체성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매개”라고 말했다.

“박항서와 한류로 베트남 시장은 지금 뜨거워... 철저한 사전조사 필요”

탈북자 전철우(53) 씨는 북한에서 20년, 독일에서 3년 반의 유학 생활, 나머지 30년을 한국에서 살았다. 1989년 탈북, 1994년 개그맨으로 데뷔, 친근한 북한 사투리로 인기를 누렸던 전 씨는 현재 40여 명의 종업원과 함께 식품 제조·유통회사인 ‘고향에프에스’, ‘전철우 맛있는 주방’ 등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그가 비즈니스 무대를 베트남으로 확대했다. 베트남 한인동포이기도 한 셈이다.

업무차 잠시 귀국한 전 대표는 6월 25일 “베트남 시장이 워낙에 핫(Hot)하기 때문에 2년 전 진출했다”며 “지금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 한류 열풍 영향으로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인, 한국문화에 열광합니다. 치안이 좋아 가족이 살기에도 적합하고 한국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베트남에 진출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더해 베트남은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전 대표는 한국에서처럼 하노이를 중심으로 식품 제조·유통회사(코레스토리)와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6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하노이에 머무는 기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하노이 지회 재창립도 준비하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 지회는 활동이 거의 없어 월드옥타 사무국이 폐쇄했던 곳으로, 전 대표가 20여 명과 함께 뜻을 모아 오는 8월 다시 문을 연다. 전 대표는 “월드옥타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한국 음식 수출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조언도 했다. 그는 “진입 문턱이 낮은 만큼 경쟁은 치열하다. 사업 환경이 좋다는 소문만 듣고 무턱대고 들어가면 문제에 부딪히기에 십상이다. 확실히 조사하고 준비한 뒤 진출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적 곡선미와 철학이 묻어있는 조각 예술로 伊서 ‘거장’ 예우받아

한해 800만 명이 찾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관문 피사 국제공항과 피렌체 국제공항에 재이(在伊)동포 조각가 박은선(54)의 대형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회가 열리면서 공항을 오가는 승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5회째를 맞이한 격년제 미술전시회인 ‘볼라레 아르테’는 올해의 주인공으로 박은선 조각가를 선정해, 그의 대표작 6점을 7월 4일부터 피사공항과 피렌체공항에서 선보이고 있다.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피사에서는 공항 외부에 높이 10m에 달하는 ‘무한 기둥’(Colonna Infinita) 등 4점, 공항 내부에 1점 등 모두 5점의 작품이 설치됐고, 피렌체공항 입구에도 대형 작품 1점이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는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 피사공항과 피렌체공항 운영사 측이 매회 유명 작가들을 1명씩 엄선해 해당 작가의 작품으로만 꾸미는 비엔날레 ‘볼라레 아르테’는 2015년 3회 행사를 박은선 작가의 작품으로 채웠다. 당시 전시에 호평이 쏟아지자 4년 만에 다시 박 작가를 전시회에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작가는 경희대 조소과, 이탈리아 카라라 국립미술원 졸업 후 25년 전 이탈리아 서부 해안의 ‘조각 성지’ 피에트라산타에 정착했다. 박 조각가는 이곳에서 나는 대리석과 화강석을 이용해 한국적인 곡선미와 철학이 묻어있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일구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에트라산타 시는 작년 10월 ‘프라텔리 로셀리’ 상을 안기며 그를 거장으로 예우했다.

피에트라산타 시가 매년 최고의 조각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이 상의 수상자 명단에는 풍만한 인체를 표현한 작품으로 잘 알려진 콜롬비아 출신의 페르난도 보테로, 폴란드의 이고르 미토라이 등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포함돼 있다. 한편, 박 작가는 다음 달 미국 휴스턴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고, 고향인 목포에서도 작품들을 선보이는 등 어느 해보다 바쁜 여름을 보낼 예정이다. **[창]**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탈북자 출신 사업가
전철우 대표



피사·피렌체 국제공항서
작품 전시회 열고 있는
동포 조각가 박은선 씨



문 대통령, 6·25 전쟁 참전유공자 청와대 초청 위로연 군 의장대 의전... “참전유공자들이 평화의 길잡이 돼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에 국군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유공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위로연을 겸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국군 참전유공자 141명, 유엔군 참전용사 재(再)방한 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군과 재외동포 참전용사 37명 등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182명이 참석했다. 그간 국군의 날 등의 계기에 6·25 전쟁 참전유공자들이 현역 장병들과 함께 청와대에 초청된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참전유공자들만 따로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연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팡파르단과 군악대의 연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3군 의장대 180명을 도열해 의전을 하는 등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를 갖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박한기 합참의장 등 한미 양국의 정부 및 군 고위관계자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이라면서,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과 애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국민을 위한 평화를 만들겠다”며 “참전유공자들께서 평화의 길잡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운욱 님을 비롯해 일본에서 살고 있던 642명의 청년들은 참전 의무가 없는데도 조국을 수호하는 전장에 뛰어들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 못했다. 우리는 그 분들을 재일학도의용군이라고 부른다”고 언급했다.

부산 용문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캄벨 에이시아(13) 양은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쟁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에이시아 양은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만나 손녀 역할을 하는 ‘민간 외교관’으로 유명하다. 에이시아 양은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에 참전해 유색인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6인에 선정됐던 김영옥 대령 등의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전했다. 문 대통령도 “고(故) 김영옥 대령님은 미국 최고의 전쟁영웅 16인 중 한 분으로, 전역을 했음에도 다시 입대해 조국으로 달려왔다”며, “휴전선 중·동부를 60km나 북상시키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발발 69주년 맞아 각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

그리스 _ 한국전쟁 당시 한국과 미수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연합군의 일원으로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그리스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가 열렸다. 주그리스 한국대사관은 6월 25일 아테네 인근 파파고 시에 있는 그리스군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한국전쟁 6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스틸리아노스 드라코스(90)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장을 비롯해 생존해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10여 명, 별세한 참전용사의 유가족, 그리스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 한국전 참전국 외교단, 현지 동포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6월 24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과 유엔군 참전유공자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위). 문 대통령이 참전유공자초청 오찬에서 캄벨 에이시아 양이 고 김영옥 대령의 조카 다이앤 맥매스 씨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스웨덴 _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은 6월 25일 저녁 스톡홀름 시내의 필름휘셋에서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 의료지원단의 활동을 다룬 기록영화 상영회를 가졌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한국전쟁 속 스웨덴인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이번 행사는 한·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한국전쟁 때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헌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사관 측은 밝혔다. 스웨덴 의료지원단은 1950년 9월 23일부터 1957년 3월까지 부산에 설치된 스웨덴적십자사 야전병원에서 연인원 1천124명이 근무하며, 2만 5천여 명의 부상 군인과 민간인을 치료했다.

이탈리아 _ 6월 21일 밤 로마 중심가 스페인광장 인근에 있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강당이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성악가들과 피아니스트,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담아 선사하는 멜로디로 넘실댔다. 이날 음악회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탈리아지회가 '한반도 평화음악회-다시 찾은 우리의 땅, 우리의 노래'라는 제목 아래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행사에는 이탈리아 정계와 문화계 인사, 한인 동포 등 약 4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탈리아는 한국전쟁에 의무병 128명을 파병한 참전국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탈리아 참전용사 유가족과 이탈리아 적십자사 관계자, 로마에 주재하는 한국전 참전국 대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일본 _ 주일 한국대사관은 6월 25일 '6.25전쟁 69주년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도쿄 미나토(港) 구 대사관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6.25전쟁에 참가한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자와 유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재향군인회 일본지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6.25 전쟁에는 재일동포 학생들 642명이 지원입대를 통해 국군이나 유엔군으로 참전했다.

필리핀 _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이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에 참전했던 필리핀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보은행사를 열었다. 필리핀한인총연합회는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10명과 가족 14명을 한국으로 초청,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은 1950년 9월~1953년 5월까지 연 7천420명을 파병했다. 변재홍 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에 감사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1. 6월 25일 그리스 아테네 근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에 모인 참전용사들과 임수석 주그리스 한국대사(가운데).(사진·주그리스 한국대사관 제공)
2.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은 6월 25일 저녁 스톡홀름 시내의 필름휘셋에서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 의료지원단의 활동을 다룬 기록영화 상영회를 했다.(사진·주스웨덴한국대사관 제공)
3. 6월 21일 밤 이탈리아 로마의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음악회'에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하고 있다.

이 총리, 애국지사 허위 선생 후손 만나 ‘하나 된 조국’ 다짐

후손들 “통일이 돼야 진정한 독립운동의 완성... 우리 역사 기억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8일 ‘서대문형무소 1호 사형수’였던 애국지사 왕산(旺山) 허위(許鳶·1855~1908) 선생의 후손들을 만났다. 키르기스스탄을 공식방문한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수도 비슈케크 시내 호텔에서 허위 선생의 손자들을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허위 선생은 1908년 의병투쟁으로 일제에 의해 사형을 당한 독립운동의 선구자다.

정부는 허위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독립유공 최고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고, 서울시는 1966년 선생이 진격할 길을 따라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3.3km 구간을 왕산로로 제정했다. 허위 선생의 형제와 많은 후손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항일 무장투쟁을 하다 희생됐다. 남은 일가들은 불행하게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해방된 조국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총리는 “할아버지(허위 선생)께서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장 먼저 사형을 당하신 애국지사 중의 애국지사”라며,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나마 해방을 맞고 이만큼이나 살게 됐는데 후손들을 제대로 모시고 있지 못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허위 선생의 4남인 고(故) 허국 씨의 아들 허 게오르기(75) 씨는 “어렵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따뜻한 친구처럼 맞아줘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후손들이 허위 선생 같은 영웅이 계셨다는 것과 우리 역사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이 희생되면서도 독립운동을 하신 가문들이 계시다. 그런 가문들에 대해 대한민국은 큰 빛을 진 것”이라며, “저희의 크나큰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도 더 많이 찾고, 후대에 알리고 기억하게 하는 일을 더 충실히 하겠다”고



키르기스스탄을 공식 방문한 이 총리가 7월 18일 수도인 비슈케크시의 오리온호텔에서 독립유공자인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인 허 게오르기 씨와 가족들을 초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 세르게이, 허 블라디슬라브, 이 총리, 허 게오르기, 허 블라디미르 씨.

다짐했다.

이 총리는 “할아버님(허위 선생)께서 꿈꾸시던 독립 조국은 갈라진 조국은 아니었을 텐데 후손이 못나서 갈라져 있습니다만, 일단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라도 꼭 하나가 되도록 그 기반이라도 닦아 놓는 것이 저희 세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 게오르기 씨의 동생 허 블라디슬라브(68) 씨 역시 “통일이 돼야만 진정으로 독립운동이 끝을 맺는 것”이라며 “아직은 여전히 독립운동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열린 동포·고려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참 어려운 세월을 이기시고 후손들을 낳아 조국의 문화와 정신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키르기스스탄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인사를 전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는 82년 전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게 된 고려인들의 후손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창**

“가슴 아픈 사연 전달하는 통역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헝가리 사고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통역 역할 한 동포 1.5세 이주안 씨

“지금까지 한국과 헝가리 간 문화, 경제, 정치 교류와 관련해 많은 통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람선 침몰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 가슴 아픈 사연을 전달하는 통역도 안 했으면 합니다.” 5월 29일 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관광객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급파와 현지 정부 관계자들의 신속한 대응 등 인명 구조 및 사고 수습을 위한 양국 정부의 움직임이 긴박했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 헝가리 경찰청과 외교부 장관실 요청으로 사고 관련 통역 자원봉사를 한 이주안(25) 씨 역시 사고 선박을 인양할 때까지 2주간 바쁜 일정을 보냈다. 특히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강 장관을 밀착 수행했다. 이 씨는 6월 18일 “이전에도 각 기관의 요청을 받아 통역을 지원한 경험이 많지만, 사고와 관련한 일은 처음이었다”며,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사 기간에 강 장관 통역을 비롯해 생존자분들의 진술을 현지 경찰 쪽에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아픔을 통역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며 “한 마디 한 마디가 잘 전달돼 수사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세살 때 부모를 따라 이민한 그는 헝가리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을 다녔고 현재 부다페스트 코르비누스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동포 1.5세대.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밖에서는 헝가리어를 사용해 두 언어가 유창하다. 강 장관이 헝가리 외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대테러청장을 만날 때, 그들이 한국에서 온 잠수부대원들과 생존자 그리고 그 가족과 면담할 때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저는 한국 국민의 부탁 내용을 전달했어요. 그때 헝가리 당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수습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 통역 역할을 한 헝가리 동포 1.5세 이주안 씨.

국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같이 품으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여러 곳의 통역을 했기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인지할 틈이 없어 힘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구조와 수색, 수사 현장에서 소통의 벽을 없애고 원활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은 큰 보람이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현재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청소년연합(YF) 헝가리 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YF에서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배웠던 활동이 이번 사고 현장에서 통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YF 안에서 봉사하면서 헝가리 학생들이 미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헝가리 국민, 특히 한국을 사랑하는 부다페스트 시민이 보여준 위로에 감사한다. 국적은 달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면서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보며 많은 힘을 얻었다”며, “아직도 사고 수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 재외선거 투표 실시

투표 참여하려면 내년 2월 15일까지 선거인 등록 마쳐야



7월 8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서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모의 재외투표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대비하여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재외선거업무를 담당하는 7개 기관의 참여하에 실제 선거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7월 8일 모의 재외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재외선거에는 171개 공관에서 3천622명의 재외국민이 참여했다. 중앙선거위는 이번 모의 재외선거의 결과를 평가하고, 절차별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재외선거 관리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선거위는 제21대 총선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 선거인은 선거 60일 전인 내년 2월 15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은 관할지역 내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17년 치러진 대선 때 등록을 했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영구명부제, 인터넷 신고·신청제,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등,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중앙선거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홍보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10월부터 공관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카자흐 '피겨 영웅' 고려인故 데니스 텐 동상 제막

“10월 알마티에서 세계 선수권대회 열어 고인 업적 기릴 것”



6월 2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에서 거행된 '피겨 영웅' 데니스 텐 동상 제막식.

지난해 7월 절도범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25세에 절명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출신 '피겨 스케이팅 영웅' 데니스 텐을 추모하는 동상이 6월 22일 알마티 시내에서 제막됐다. 현지 매체 '한인일보'에 따르면 높이 2.4m의 데니스 텐 동상은 러시아 조각가 마트베이 마쿠쉬킨이 제작했다. 동상은 고인이 동메달을 획득한 소치올림픽에서 펼친 마지막 동작을 형상화했다.

이 동상은 고인이 숨진 장소인 쿠르만가자-바이세이토바에 세워졌다. 제막식에는 고인의 부모와 카자흐스탄의 아르만 쿠크바예프 알마티 부시장과 문화체육계 관계자, 고려인협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쿠크바예프 부시장은 “우리는 데니스가 이룬 승리의 기쁨을 카자흐스탄의 젊은 세대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알마티에서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을 초청해 선수권대회를 열어 고인의 업적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민공호 선생의 고손자인 고인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카자흐스탄 국가대표로 참가했고, 201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 2015년 ISU 4대륙 선수권대회 금메달,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동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9일 알마티 시내에서 자신의 차량 백미러를 훑치려는 절도범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멕시코 유카탄 주, 5월 4일 '한국의 날' 제정... 주의회 만장일치 가결

한인 이민자 기여 인정... 연내 연방의회 '한국의 날' 제정도 추진



멕시코 유카탄 주의회가 7월 15일 본회의를 열어 1905년 1천33명의 한인이 유카탄 주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고자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주멕시코 한국 대사관 제공)

멕시코 유카탄 주는 7월 15일 주의회 본회의에서 1905년 1천33명의 한인이 멕시코 유카탄 주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고자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파올리나 아우로라 비아나 주 의원은 대표연설에서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이 유카탄에 도착한 후 어려운 생활환경에도 근면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유카탄 사회 발전과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우로라 의원은 매년 5월 4일에 주 정부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카탄 주에는 현재 3천여 가구의 한인 후손이 거주하고 있다. 메리다 시와 인천 시간 자매결연, 제물포 거리 조성, 대한민국로 명명, 한인 이민사 박물관 개장, 한·멕시코 우정병원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유카탄 한인후손회 율리세스 박 회장은 "유카탄 주 차원의 한국의 날 제정은 모든 한인 후손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선조들의 한을 일부 풀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 대사관은 메리다 시와 캄페체 시의 한국의 날 제정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연방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해 왔고, 이에 따라 연방상원은 4월 30일 한국의 날(한인 이민의 날) 제정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캄페체와 메리다 시는 조례로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재일동포 위안부피해자 故 송신도 할머니 추모 사진전 도쿄서 열려

재일 한국인 위안부피해자로는 유일하게 日 정부에 사죄·배상 요구 제소



송신도 할머니가 2011년 8월 13일 서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1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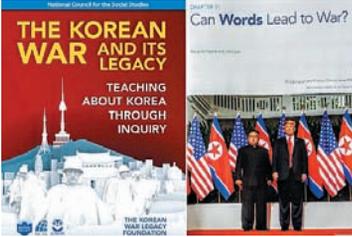
재일동포 위안부피해자인 고(故) 송신도 할머니를 기리는 사진전 '이웃집 송 할머니'가 7월 14일 도쿄 나카노(中野) 구에 있는 문화센터 '나카노 제로(ZERO)'에서 개막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반전평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7월 21일까지 무료로 개최한 이 사진전은 1992년 이후 송 할머니의 일상과 집회 참가 모습을 담은 80점을 선보였다.

전시회를 준비한 게이오(慶應)대 4학생인 다니 고요(谷虹陽·22) 씨는 "전시 성폭력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송 할머니의 체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송 할머니는 16세 때인 1938년부터 7년간 중국에서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인 1946년 일본으로 건너가 미야기(宮城) 현 등에서 살아온 송 할머니는 재일 한국인 위안부피해자로는 유일하게 199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소송은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송 할머니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생전에 "다시는 전쟁을 해선 안 된다"고 호소하고 다녔던 송 할머니의 10년에 걸친 재판 과정은 2007년 다큐멘터리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로 소개됐다. 송 할머니는 2017년 12월 도쿄에서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美 초·중·고 ‘한국전쟁 교재’ 첫 발간… 일선 교사 1만5천 명에 배포

231쪽 교사용 교육자료집 ‘한국전쟁과 그 유산’… 참전용사 증언도



미국 내 비영리 재단 ‘한국전쟁 유업재단’은 미국 초·중·고교의 한국전쟁 관련 수업을 위한 자료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왼쪽은 자료집 표지, 오른쪽은 11번째 챍터.

미국의 초·중·고교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증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료집이 처음으로 출간됐다. 미국 내 비영리 재단인 ‘한국전쟁 유업재단’(이사장 한중우)은 6월 24일 미 사회·역사 교사연합회인 ‘미국사회과학 분야 교원협의회(NCSSL)’와 공동으로 일선 교사용 한국전쟁 교육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보훈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제목은 ‘한국전쟁과 그 유산’(The Korean War and Its Legacy)으로, 총 231쪽 분량이다. 앞서 한국사 전반을 다루는 교육자료집이 출간되기는 했지만, 한국전쟁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수업교재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일선 교사들에게 정확한 수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한국전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자료는 NCSS 소속 일선 교사 1만5천 명에 먼저 배포된다. 이에 따라 9월 시작되는 2019~2020년도 학기부터 초·중·고교 사회·역사 수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집은 초·중·고교별로 각각 5개 챍터로 구성됐다. 한국전쟁 유업재단은 2012년부터 한국전쟁 참전 13개국의 참전용사 1천300명을 인터뷰했다. 한중우 이사장은 “한국전쟁을 주제로 방대하고도 독립적인 교육자료집을 집대성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6·25전쟁 제69주년에 즈음해 이미 고령에 접어든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한국전쟁 교육자료집을 조만간 캐나다 교사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대한 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윤 아프로그룹 회장, 재일 금강학교 이사장 선임

“일본 내 한국학교의 경쟁력 있는 교육은 재일동포사회 탄탄하게 만들 것”



금강학교 신임 이사장에 오른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사진·OK저축은행 제공)

OK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최윤 회장이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학교법인 금강학원(금강학교)의 제12대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다. 7월 3일 오케이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강학교 이사회는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의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일본에 있는 한국민족학교를 한국 교육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최 회장의 행보가 본격화한다.

금강학교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인가받은 해외 한국학교다. 현재 200여 명의 재일동포와 일본 초·중·고교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외국에 설립되는 정규 학교를 뜻한다. 일본에는 6개교의 한국학교가 있지만, 대부분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이 모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이를 개선하고자 OK배정장학재단이 지난 5월 금강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최 회장이 이사장에 올랐다.

최 회장은 “일본 내의 한국학교는 재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외에도 삶의 터전인 일본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며, “일본 한국학교의 경쟁력 있는 교육은 재일동포사회를 탄탄하게 만들고, 나아가 조국인 한국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인재 육성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캐나다한인회총연, 오타와서 정치력 신장 콘퍼런스 열어

캐나다한인회총연협회(회장 주점식)는 6월 22~24일 오타와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2019 캐나다 한인 정치력 신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인 차세대가 연아 마틴 의원(한국명 김연아·사진)처럼 캐나다 주류사회에 진출해 성공하고, 한인사회 위상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한인 최초로 캐나다 연방 상원에 진출한 마틴 의원은 이 행사에서 한인 차세대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강연을 했다.

중 라오닝성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이홍광 신임회장 선출

중국 라오닝 성의 조선족 연합단체인 라오닝성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회장 장덕수)는 신임회장으로 이홍광 부회장(사진)을 선출했다. 협회는 6월 28일 선양 시 한제원민속문화단지에서 제8기 대표 회의를 열어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라오닝 성 14개 주요 도시의 협회 지회와 기업가협회, 노인협회, 예술가회, 한중교류문화원 등 12개 조선족 단체 관계자 23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회 명칭을 라오닝성조선족연합회로 개정했다.



Hangul Day Petition - ACR 109



“10월 9일을 ‘캘리포니아 주 한글의 날’로 만들자”

LA한인회와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등 재미동포 단체들이 한글날인 10월 9일을 '캘리포니아 주 한글의 날'로 제정하자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결의안(ACR 109)을 지지하고 나섰다. LA 한인회는 7월 19일부터 한인타운 등지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청원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온라인 지지 서명도 받고 있다. 최석호, 사론 퀸 실바, 미겔 산티아고 등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6월 27일 결의안을 하원에 발의했다.

재미동포 작가 손용상 씨, 정통문예지 ‘한술문학’ 창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소설가 손용상 씨가 최근 종합문예지 '한술문학' (사진)을 발간했다. 우선은 연 2회 출간하고, 향후 계간 또는 월간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창간호에는 국내는 물론 북미 각 지역의 문인들이 참여했다. 발행인 손 작가는 "미국 중부에 새로운 문학적 기틀을 정립하고자 한다"면서 "타향과 분향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통 순수문예를 추구하는 '미주판 현대문학'으로 발돋움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류야 놀자!”... ‘브라질 한류 엑스포 2019’ 상파울루서 개막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7월 6일 한류의 매력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한류 엑스포 2019'가 개막됐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원장 권영성) 주관으로 열리는 한류 엑스포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시내 엑스포 센터 노르치(Expo Center Norte)에서 이틀간 열린 이 행사는 브라질 내에 폭넓게 형성된 한류 팬과 한인 동포들이 대거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남미 최고의 K-컬처 페스티벌이다.

중 선양서 월드옥타 대북경협 포럼... “성공·실패 사례 공유”

전 세계 한인 기업이 모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7월 11일 북·중 접경인 중국 라오닝 성 선양(瀋陽) 동베이(東北)빌딩에서 하용화 회장 등 회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대북 경제협력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회의에서는 천용수 호주 코스트 그룹 회장의 대북사업 유의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천회장은 철저한 계약사항 문서화를 비롯해 사업성 분석, 사업장 주변 인프라 사정에 대한 검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투자 및 공동투자 등에서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독립운동가로, 초기 재미동포사회 지도자로 활약한 도산 안창호 선생

캘리포니아 주 의회, 도산 탄생일을 기념일로 제정

지난해 8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도 새크라멘토 도심에 위치한 주 의사당. 한인 1.5세 최석호 주 하원의원은 '도산(島山) 안창호의 날' 제정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안창호(1878~1938) 선생의 이력을 동료 주 의원들에게 소개했다. "도산은 한국민들에게 나라 안팎에서 가장 애국적인 인물로 여겨지며... 그는 미국에서 총 13년간 살았다. 그것도 주로 캘리포니아에 기거하면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자 주저하지 않고 떨어져 일어섰고, 투옥과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38년 3월 10일 순국했으며, 생전에 보여준 그의 열정과 실천은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의 뿌리를 심어준 자양분으로 남았다는 게 최 의원의 의사 발언 요지였다. 로스앤젤레스(LA) 동쪽 소도시 리버사이드는 도산의 미국 내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다. 도산은 이곳에 미국 내 한인타운의 효시이자 도산공화국인 파차파 캠프를 건설했다. 그의 동상도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 세워져 있다.

결의안은 주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18년부터 매년 11월 9일(도산 탄생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포한 것이다. 결의안은 안창호 선생이 10대부터 서울의 미션스쿨에 다니며 조국의 현대적 교육을 꿈꿔온 점, 1899년 평안남도 강서에 근대적 교육기관인 점진(漸進) 학교를 세운 뒤 미국의 교육제도를 배우겠다는 열망을 안고 1902년 10월 14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직후 도산 안창호 선생(앞줄 가운데)의 모습.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을 캘리포니아 자치공동체에 정확하게 한 점, 그리고 1905년 공립협회, 1906년 신민회, 1909년 대한인국민회를 잇달아 세운 뒤 1913년 흥사단 설립의 초석을 닦았다는 대목도 들어갔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외국인의 탄생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업적을 기려 기념일을 제정한 건 도산을 민족 지도자를 넘어 이민사회의 리더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인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평가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산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안창호 선생은 1919년 5월 상하이에

도착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했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가 일왕 생일 행사장인 흥커우공원에 폭탄을 투척한 날 상하이 한인거류민단장이던 이유필의 집을 방문했던 선생은 일본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국내로 압송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대전감옥으로 이송되는 2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끝에 1935년 2월 가출옥했다.

일제는 국내 민족운동을 말살하고자 1937년 6월 동우회 사건을 일으켰다. 선생을 비롯한 180여 명의 동우회 회원들은 종로경찰서로 넘겨져 135일간 집중 조사를 받았으며 '치안유지법 위반' 판결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지병 악화로 보석으로 출소했지만, 1938년 3월 서거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한반도 화합 기원 ‘고려인 자동차 랠리팀’ 2만5천km 대장정 돌입

유라시아-한반도 종주... “北, 입국·군사분계선 통과 아직 승인 안해”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고려인)들이 남북한 화해와 한반도 해빙 과정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로, 러시아-중앙아시아-남북한을 자동차로 종주하는 오토랠리 행사를 5년 만에 다시 열었다. 고려인들은 지난 2014년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맞아 유사한 행사를 처음 개최한 바 있다.

한반도 화합을 기원하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취지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오토랠리 2019-조상의 부름’으로 이름 붙여진 랠리 참가팀이 7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떠나 약 2개월 동안의 대장정에 올랐다. 랠리 팀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등을 거쳐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 온 뒤, 다시 러시아 극동을 통해 출발지 모스크바로 되돌아오는 약 2만5천km의 대장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러시아인, 일부 한국인 등 40여 명이 랠리에 직접 참가한다. 랠리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은 러시아 지역학자 박정곤 씨와 동북아 평화연대 소속 직원 등 한국인 8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지프 등 10대에 나눠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내달릴 예정이다.

이날 출발에 앞서 모스크바 시내 크렘린궁 인근의 자라디예 공원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는 러시아 정부 및 모스크바 시민사와 주러 한국대사관 관계자, 현지 고



러시아-중앙아-남북한을 자동차로 종주하는 오토랠리 참가팀이 7월 9일 모스크바 시내에서 출발하고 있다.

려인 동포, 한인 동포 등이 참가해 랠리팀의 장도를 격려했다. 고려인 4세로 랠리 행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 에르네스트는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민간 외교 차원에서 남북한 화합과 통일에 한걸음의 보탬이라도 되는 것이 우리 행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랠리 팀은 예정된 루트를 거쳐 광복절인 8월 15일 남북한 군사분계선(MDL)을 넘는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랠리 팀의 북한 입국과 MDL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러 북한 대사관 측과 계속 협의해 왔지만, 출발 당일까지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주러 한국대사관 측은 “북한이 MDL

통과를 허용하면 우리 정부도 이들을 받아들일 예정”이라면서 “모든 것이 북한 측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동북아 평화연대가 랠리 팀의 주요 도시 방문 등의 행사를 주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행사 때는 랠리 팀이 러시아 극동 하산을 경유해 북한 나진으로 입국한 뒤 북한 내 주요 도시들을 거쳐 경기도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2014년 행사와 올해 행사에 모두 참여한 한 관계자는 “5년 전에는 북한 측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협조적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출발 당일까지 입국 및 MDL통과 허가와 관련한 확답을 주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장]**

유철중 연합뉴스 모스크바 특파원

9개국 재외동포 대학생 286명 모국 연수... 역사 체험 프로그램 시행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주최하고 부산YMCA가 주관하는 '2019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가 7월 9일부터 7박 8일 간 열렸다.

올해 연수에는 39개국 444명(재외동포 286명, 국내참가자 158명)이 참가했으며,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5개 도시(서울, 부산, 안동, 순천, 공주)의 3·1 만세운동 현장을 찾고, 변화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세계한인대학생 평화토론대회를 개최하여 최근 한반도 평화 이슈를 언어권별로 나눠, 한인 대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한우성 이사장은 7월 10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모국 연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를 배우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내 대학생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어제와 내일



2019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개회식 단체사진.

을 만나게 된다. 아무쪼록 한국의 문화와 역사, 예술과 전통 등 많은 것을 온몸으로 배우고 체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 초청 연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CIS 지역 3개국 고려인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주최로 6월 26일 한국외국어대학에서 개막했다. 7월 31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는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의 교육역량과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30여 명의 고려인 동포 한글학교 교사와 현지 학교 한국어 교사가 참가했다.

연수 기간 참가자들은 분반 수업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교수법을 배웠으며, 사물놀이, 한식 등 전통문화 체험과 현장 답사를 통한 역사문화 교육에 참여했다. 경복궁, 수원 화



지난 6월 27일 '2019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참석자들이 개회식 후 한우성이사장(앞줄 왼쪽에서 다섯째)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성, 통일 전망대를 견학하고 제주도 여행 기회도 가졌다.

한우성 이사장은 "이번 연수가 러시아와 CIS 지역 고려인 동포사회의 한국어 교육 기반을 다지고, 차세대 고려인 동포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고려인 사회 세대

교체에 따른 정체성 단절을 극복하고 한국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고려인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9 한글학교 교사·교장 초청연수 개최… 한국어 교수법 공동연구

'2019 한글학교 교사·교장 초청연수'가 7월 8일 오후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7박 8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주최한 이번 연수는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육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52개국 180개 한글학교에서 250여 명의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이 참가했다. 참가 교사·교장은 한국어·문화·역사 과목의 교수법 실습, 한글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등 한글학교 교원으로서는 역량 제고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국역사 특강, 차세대 동포를 위한 통일 교육, 한글학교 운영 컨설팅, 한국 역사·문화 체험, 참가자 간 정보 공유 등의 시간도 가졌다. 7월 13일에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 천안독립기념관을 방문했고, 14일은 '신명나는 장단, 흥겨운 한글'이라는 주제로 전통 노래와 놀이를 즐겼다. 이어 한글학교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과 발표가 이어졌다.

한우성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사회의 차세대 육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한글학교와 지역 내 한인 사회 전체가 화합, 협업하여 이루어 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글학교가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숙제이자, 미래의 한글학교 비전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전욱 아르헨티나토



7월 8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19 한글학교 교사·교장 초청연수' 개회식.

요한글학교 교장은 답사에서 "지난주 한국에 도착하여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에 놀랐다. 교통시스템은 물론이고 식당에서는 음식주문도 기계가 하고 있었으며, 안경점의 첨단장비들, 20여 년 전보다 더욱 발전된 도심의 녹지 환경과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자주 눈에 띄는 외국인들... 여기에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느끼게 했다"며 "해외에 사는 저희들에게 조국의 발전은 재외동포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초청 직업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멕시코와 쿠바에 사는 한인 후손들을 국내로 초청해 오는 9월 27일까지 약 12주간 직업 연수를 진행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멕시코, 쿠바 한인 후손 24명은 7월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에서 진행된 '2019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직업 연수'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연수에 돌입했다.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직업 연수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까지 미용, 한식, 제과·제빵 분야 교육을 시행했으나 현지 취업·창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올해는 헤어, 뷰티, 메이크업 등 미용 분야를 집중 교육

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멕시코, 쿠바의 한인들이 현지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9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초청 직업연수' 개회식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과 연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미동포 문학의 아버지 강용흘... “큰 문학자가 있어야 큰 나라이다”

강용흘(姜鏞訖, 1898-1972)은 발자취 하나하나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재미동포 문학 작가이자 독립운동가이다.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일제강점기에 3.1운동 가담자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했다. 이후에도 경찰에 쫓기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민한 재미동포 1세대 문학가이기도 하다.

1931년 자신의 첫 번째 영문소설 ‘초당(The Grass Roof)’을 뉴욕에서 간행하며 미국 문단에 화려하게 데뷔한다. 소설 ‘초당’은 본인이 출생한 고향 함경도에서부터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다.

일제 침략으로 황폐해진 삶, 조국을 되찾기 위한 3.1운동과 항일의 가치,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아메리칸 드림 등이 스며 있다. 신문을 배워서 조국의 개화에 일조하겠다는 신념과, 재미동포 1세대로서 겪은 다양한 감정의 역동을 보여주는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기도 하다. 1900년대 초 급박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어린 시절 아름다웠던 고향 마을과 자연, 전통사회의 가부장주의, 민족주의 등 한국 고유의 정서도 담겨 있다.

‘초당’은 출간되자마자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양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국의 목가적인 생활 양식과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하여 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작품은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당시 미국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어 참신한 충격을 주었다.

‘초당’의 문학적 성과도 대단했다. 재미동포 작가 최초로 ‘구겐하임 상’과 ‘금세기 책(The Book of the Century)’ 상을 받았다. 미국의 언론·음악·문학 부문에 큰 업적을 남겨 높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폴리처상’에 ‘대지(The Good Earth)’의 작가 ‘펄 벅(1892-1973)’과 함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본 작품은 독일,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등 10개국에 번역 출



판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48년 총 2부작 중 1부작만 번역되었고, 1975년에 완역되어 고국의 독자들과 만나게 됐다.

강용흘은 영문으로 소설을 썼고, 미국 문단의 주류로 주목을 받았지만, ‘초당’은 물론, ‘동양 선비 서양에 가다(East goes West, 1937)’, ‘행복한 숲(The Happy Grove, 1934)’ 등 모든 작품의 주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중시하였으며, 소재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년 시절의 경험에서 가져왔다. 작품 외에도 뛰어난 언어 실력을 발휘하여 한국문학을 번역하고 미국에 소개하는 활동을 했다.

특히,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아내 프란시스 킬리와 공역)과 시조 등 한국문학을 잡지에 기고했고, 기미독립선언문 영문 번역을 맡았으며, 뉴욕타임스, 네이션 등 주요 신문에 한국의 독립과 일본 제국주의 비판을 기고했다.

해방 이후 잠시 귀국하여 미 군정청 출판부장으로 있다가, 6.25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뉴욕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영문학과 비교문학을 가르치며 교수로 재직했다. 1968년, 70세에 본인이 평생 모아온 철학, 역사, 미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장서 5,000권을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고 힘나했던 삶을 마무리했다. [▶](#)

정체성 교육



백봉자
전 연세대학교 교수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고 문화교육을 한다. '정체성'이란 '우리 본래의 참모습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존재'로 정의하지만 우리의 참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모호하여 알기 어렵고 이것을 가르치기는 더욱 어렵다. 교육 현장에서는 전통문화 자료에 의존하거나 역사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이 청소년들의 인성에 제대로 심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얼마 전 미국의 한글학교 교사가 쓴 체험 수기를 읽고 가슴 뭉클한 적이 있다. 한국 남매를 입양한 미국인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니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집도 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미국인 부모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다음 날 밥과 계란찜 등 아이들이 한국에서 먹었을 것 같은 음식을 싸들고 방문했는데 아이들은 한국음식과 한국말을 접하고는 금방 울음을 그쳤다고 한다. 교사는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정착할 때까지 엄마처럼 그 집을 방문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어로 듣고 말하고 느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해 가는 시기에 갑자기 낯선 문화와 마주치니 혼란스러웠던 모양이다. 정체성이란 어릴 때의 생활문화가 기초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감성이 정신세계에 깃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립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체성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청소년이 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체성 확립의 목적은 단순히 한국인의 한스러운 과거를 알거나 옛 위인의 업적을 익혀 답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자기가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아갈 길을 찾게 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 교육이 우리 청소년의 앞날의 새 창을 여는 데 힘이 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정체성 교육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면적 이해로 그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알팍한 교육은 자칫하면 과거의 상황을 알게 하는 역사교육으로 한정되기가 쉽고 한국인의 사고의 틀을 고정시키는 고정 관념에 갇히게 할 위험마저 있다.

우리의 정체성 교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어릴 때 먹고 보고 듣고 하여 몸에 밴 감성애다가 한국의 문화 자료로 배운 지식이 바탕이 되어 그들의 영혼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료에서 보이는 세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긴 호흡이 필요하다. **창**





2019년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기업 상시모집 공고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과, 해외 한상기업에게는 맞춤형 국내 우수인력 제공을 위해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년의 해외진출 및 한상기업의 인턴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시행하던 정기(연3회) 모집 외에 상시모집을 아래와 같이 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 차세대 한상 육성 및 한민족 경제영토 확장

2. 모집개요

- 주관: 재외동포재단
- 모집인원: 100명(모집 인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인턴기간: 6개월
- 직무내용: 디자인, 무역, 행정, 기술직 등 한상기업별 요청 직무
(※상기 분야 외 신청 가능)

3. 인턴채용 기업 선정 기준

- 현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연매출 100만 불 이상 기업
- 상시 종업원 5명 이상 기업
- 인턴의 현지 적응 및 실무 교육 가능 기업
- 인턴의 업무로 사무직 제공 가능 기업(서빙 · 참고관리 · 라벨작업 등 단순 노무 불가)

- 매월 최소 US\$5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숙소, 교통, 식사 등) 제공 가능 기업
 - 현금+현물(숙소, 교통비 등)로 합산 지원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국가의 경우 최저시급 보장 필수)
-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채용 가능 기업 우선 선발

4. 재외동포재단 지원 내용

- 한상 기업
 - 지원대상: 최소 3명 이상 면접 및 1명 이상 채용 기업
 - 지원내역: 왕복항공료, 숙박(1박, 2인 1실), 면접장소(서울)
(※근무 국가↔한국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GTR 상한액 내 지원))
- 청년 인턴
 - 인턴사원에게 재단 지원금(최대 600만원) 지급
(※1~5개월 매월 80만원, 6개월차 200만원 지급)
 - 보험료 지원, 사전 교육비 지원
 - 취업 확정시 취업비자 취득, 객신을 위한 왕복항공료 지원(이코노미석, GTR 상한액 내)
 - 산업인력공단의 취업장려금 안내(자격 해당자)
(※세무 접수 방법 및 일정 등은 한상넷(www.hansang.net) 참고)

5. 문의: 한상사업부

(gotogether@okf.or.kr / +82-64-786-0287)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대만 한인 100년사 대만한인사편찬위원회

대만에 한인들이 건너와 정착한지 100년이 됐지만 동포들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었다. 대만 한인들에 대해 한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만 한인사회 100년을 맞아 '대만한인 10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다. 100년사 발간을 계기로 대만 한인동포들이 우리의 역사를 알게되고 카오슝 등 지역 한인회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연리지처럼 조육규 조사무(선우미디어)

재미동포 작가 부부의 에세이로 개인의 삶 속에서 좁게는 한사람의 이야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해나감에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한 글의 모음이다. 타향에서 부부로 의지하며 살아가며 겪었던 모습들을 부부의 글로 만나볼 수 있다. 연대하며 인생의 파도를 함께 맞아 견뎠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있는 감상을 해보길 바란다.



'아나뚫 편지 : 같이 비를 맞고 걸어야 평화가 보인다' 정이신(문사철)

탈북민에게 한자를 가르쳤던 저자가 탈북민의 삶을 간접적으로 겪었던 경험을 글로 풀어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탈북민이 처한 상황, 남북교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성찰해보는 내용을 담았다. 도서의 부제 '같이 비를 맞고 걸어야 평화가 보인다'에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축하였다고 한다. 남북이 갈라진 가운데 대한민국 현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탈북민의 현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자.



마음을 읽는 카드 한혜영(교학사)

재미동포작가 한혜영은 그간 미국 내 한인입양아 문제 및 동포 관련 이야기를 그린 동화 등을 출판했다. 아이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땅에 이민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그려냈던 기존 작품과 달리 이번 작품 '마음을 읽는 카드'는 일인칭 시점으로 아이들에게 착한 일이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화는 판타지와 현실을 절묘하게 배합해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쉽게 책속에 빠져들게 만들 뿐 아니라 재미와 감동도 느끼게 해준다.



New 100 years with Hansang!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

제18차
세계한상대회

THE 18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9.10. **22**(화) _ **24**(목) 여수세계박람회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재외동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2019. 10. 2 (수) - 5 (토) |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

주최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